

2007. 7. 16 제171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7. 16 제171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홍콩 기획기건전람관

도시경영·경제

1. ‘서비스 도시 베를린’ 법안 의결 (베를린)
2. 관광정보 안내소 설립에 민간기업 참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3. 교육·의료 분야 민간 감찰단 모집 (북경)
4. 지역 창조 펀드사업 실시 (오사카府)

복지·문화

5. 인공안개를 이용한 실외공기 냉각시스템 가동 (도쿄都 롯본기 힐스지역)
6. 비영리단체 법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도쿄)
7. ‘레스토랑 실외 금연’ 조례 확정 (캘리포니아州 비벌리힐스市)
8. 의료기관 서머타임 실시 (북경)

목 차

도시환경

9. 지구를 살리기 위한 6가지 생활방식 홍보 (런던)
10. 공무원 생수 구입 금지 시행 예정 (샌프란시스코)
11. 자동차 대기오염 측정 검사 실시 (브라질 상파울루市)
12. 매연차량 주차요금 차등 부과 추진 (런던市 이슬링톤區)
13. ‘불을 꺼요, 런던’ 운동 전개 (런던)
14. 풍력 발전을 이용한 루미나리에 개최 (런던)
15.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 연료 제조 (일본 후쿠오카縣)
16. 수질 개선으로 페트병 수돗물 판매 (도쿄)
17. 대규모 사업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의무화 (도쿄)
18.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 제도 확대 실시 (도쿄)
19. ‘꽃 매트’를 이용한 도시녹화 (도쿄)

도시교통

20. 급행버스 노선 확대 추진 (로스앤젤레스)
21. 자전거 패션쇼 개최 (런던)
22. ‘자전거 르네상스’ 이벤트 개최 예정 (런던)
23. 불법주차 감시원 제도 확대 시행 (도쿄)

방재·안전

24. ‘존경 지역’ 지정으로 반사회적 행동 감소 (영국)

[벤치마킹 사례]

홍콩 기획기건전람관

<주요 내용>

- 2002년 7월 개관한 홍콩 기획기건전람관(規劃及其建展覽館)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상해 성시계획전시관을 참조해 설립한 도시 홍보관임. 홍콩특별행정구가 재정을 지원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운영을 담당함.
 - 홍콩특별행정구민, 중국 본토 및 해외 여행객, 전문가 등 한 달에 8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음.
 - 예약 그룹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4회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5명 이상의 단체방문 시 일주일 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좁은 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 전시홀의 경우 부문별로 별도 구획을 하지 않고, 벽면에 30여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대형 전시홀의 중앙에는 공간을 비교적 덜 차지하는 소형 상세모형을 배치해 전시홀을 좀더 집약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건주랑’이라는 전시홀의 기다란 복도 벽면을 활용해 대형 도시모형을 설치했음.
 - 전시관의 벽면은 금속톤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무더운 홍콩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줌.
 - 전람관에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도시, 관광, 교통 및 물류, 환경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전시하며, 광둥어와 북경어, 영어로 소개함.
 - 대형 전시홀 1개와 소형 전시홀 3개로 구성돼 있는데, 대형 전시홀에는 도시, 관광, 교통 및 물류부문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 놓았고, 환경부문 사업은 대형 전시홀 뒤편에 마련된 부전시홀에 전시함.

- 환경부문 전시홀 왼쪽에 기획 전시홀이 있고, 출구쪽에 기건주랑 전시홀이 있음.

- 모형, 3면 파노라마 영상, 가상 비행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도시 건설 게임과 도시재생 게임을 마련함.

- 어린이 단체방문객의 경우 관람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시된 사업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도 함. 어린이용과 청소년용으로 나뉘어 있고 테스트를 모두 마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음.

-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전시관에서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완차이 워터프론트 계획안은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보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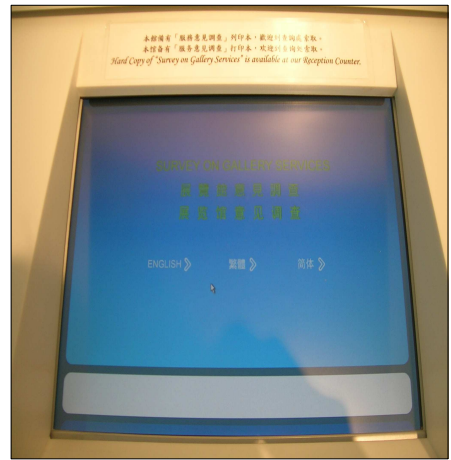
- 출구에 터치스크린 2대를 설치해 시민의견을 받고 있음.



전람관 전경



전람관 내부



터치스크린

<해설 및 평가>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시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도시의 미래상과 주요 시책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정부의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홍콩 기획기건전람관은 시청 도시계획국 인근에 설치돼 있어 도시계획 관련 정책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됐을 때 전람관을 통해 신속히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도가 높음.
- 주로 사업설명과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하는 다른 도시 홍보관과 달리 홍콩 기획기건전람관은 홍보관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시민 이해에 두고 있음.
- 시민이 홍콩특별행정구의 미래상을 인식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계획을 이해하며 주요 시책사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운영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음.
- 시민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시민단체의 참여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음. 서울시는 청계천 홍보관 등을 통해 市의 현안사업을 홍보하고, 분야별 전문가나 특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토론방을 마련해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시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 홍보와 시민의견 수렴은 대상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계층에만 한정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찾더라도 도시계획 부문 전문지식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 홍보관이나 청계천 홍보관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시청각 자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전시내용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서울시 일반현황이나 청계천 사업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서울의 미래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개체나 장소가 필요함.

-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의 과거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만나고 서울의 현재는 서울의 거리나 시장에서 느낄 수 있지만, 서울의 미래는 알고 싶어도 알려주는 장소가 없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장소에 서울시 도시 홍보관을 건립해야 함.
- 현재 서울시는 시청사 증축사업을 통해 청사 건물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공간은 시민을 위해 개방하고자 함.
- 서울시 신청사는 도심에 있으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경복궁, 덕수궁, 청계천, 남대문시장 등이 있어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임.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 도시 홍보관을 서울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면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의 미래상과 서울을 변모시킬 주요 시책사업 정보를 제공할 서울시 도시 홍보관은 서울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서울의 미래를 세계에 보여주는 유일한 장소가 될 것임.

/민현석 도시계획부 부연구위원(paulmin92@sdi.re.kr)

1. ‘서비스 도시 베를린’ 법안 의결 (베를린)

○ 행정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베를린市 내무·체육부가 제안한 ‘서비스 도시 베를린’ 법안을 시의회가 2007년 6월 12일 의결함.

- ‘더 많은 서비스, 더 나은 품질’이라는 모토 아래 베를린 행정의 서비스와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회기 동안 총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와 계획을 추진함.

- 서비스 공급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접근이 쉽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임.

- 이 계획은 다음의 5가지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됨.

- 각 구청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전자 조달 방식으로 진행함.
- 베를린市 민원콜센터 지속적 향상
- 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전자 입찰 실시
- 전자 신고·등록
- 전자 건축허가

- 베를린市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제활동 조건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 도시 베를린’의 조정과 감독은 市 내무·체육부가 맡으며,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성과와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6/12/79505/index.html)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바市>

- 대학 졸업 후 서비스 관련 자영업을 하는 새내기 사회인에게 사업 첫해에 서비스세 면제 혜택 제공

- 공무원 정년퇴직 준비 프로그램을 도입해 건강관리, 적성 및 능력 개발,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 안내 및 교육

2. 관광정보 안내소 설립에 민간기업 참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관광정보 안내소 신설과 이미 운영 중인 안내소 개선 작업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고 있음.
 - 市 특별관광국 및 리우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별관광국에서 제안을 받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시정부의 계약 기간은 3년임.
 - 민간기업은 안내소 개선공사나 건설공사 책임을 맡게 됨.
 - 리우 관광공사는 민간기업의 제안을 분석하고 관광정보 안내소 신설과 무료 안내책자 배부, 관광 안내요원 지도 등을 담당함.

(www.rio.rj.gov.br)

3. 교육·의료 분야 민간 감찰단 모집 (북경)

- 북경市는 2007년 6월 20일 교육 및 의료 문제에 대해 시민이 문제점을 짚고 의견을 제안하는 민간 감찰단 모집공고를 냈.
 - 市 교육위원회와 위생국, 감찰반은 市의 교육 및 위생시스템에 대한 민주평의제도를 마련하기로 결정함.
 - 민주평의제도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학교와 병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임.
 - 市는 300명의 모범 시민을 선발해 민간 감찰단으로 활동하게 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市 감찰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app.beijing.gov.cn/jcyqs/web/index.jsp)

4. 지역 창조 펀드사업 실시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면서 기술과 인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함.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 중소기업 지원 펀드 용자사업의 제1호 용자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임.

- 사업 주체인 오사카 산업진흥기구는 펀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역지원사업 지원액으로 1건당 300만 엔(약 2400만 원) 상한 및 지원 비율 1/2 상한, 지역지원사업 지원액으로 1건당 1000만 엔(약 8000만 원) 상한 및 지원비율 2/3 상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함.

·광역지원사업은 오사카 산업진흥기구가 사업 주체가 돼 참신성과 혁신성, 경쟁우위성 등 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임.

·지역지원사업은, 오사카府 내 상공회의소 9개소에 설치된 지역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지역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가 사업 공모·선정·지원의 운영주체가 돼 지역의 중소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내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오사카 지역 창조 펀드’의 기금 총액은 200억 엔(약 1600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160억 엔(약 1280억 원), 오사카府가 2억 엔(약 16억 원), 금융기관이 38억 엔(약 304억 원)을 출자해 조성함.

(www.pref.osaka.jp/fumin/html/16227.html)

한줄 뉴스

<일본>

-사이타마縣, 2007년 7월부터 번화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호객하는 행위 규제 대상업소 확대

-도쿄都, 2007년 6월 말부터 都營 지하철 모든 역에서 무선 랜 이용 가능

복지 · 문화

5. 인공안개를 이용한 실외공기 냉각시스템 가동 (도쿄都 롯본기 힐스지역)



○ 시민이 뽀뽀는 지역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모리빌딩社가 도쿄都 지하철 롯본기역 근처에 에너지 절약형 실외 냉각시스템 ‘드라이 미스트’를 가동함.

- 이 시스템은 노즐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해 물방울의 기화열로 주변 온도를 2~3℃ 가량 낮추는 원리로 작동되며, 2005년에 개발돼 공간 냉각 및 경관 효과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3.5m 높이에 3m 간격으로 9곳에 설치해 분무 면적은 180㎡임.

·분무되는 물방울은 16μm로 미세하고 청결한 수돗물을 사용함.

·물방울은 완전히 기화되기 때문에 피부나 옷이 젖는 등 불쾌감이 거의 없음.

·소비 전력량은 에어컨의 3% 정도로 환경부담도 거의 없음.

- 2006년에 이어 2년째 가동하는 것인데, 통행자의 91%가 ‘쾌적하다.’고 평가함.

·2007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분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임.

(headlines.yahoo.co.jp/hl?a=20070626-00000000-hsk_rp-l13)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는 물 뿌리기 사업 등 도시 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어컨보다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물을 미세한 입자 상태로 분사해 완전히 기화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쾌적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서울시가 현재 시행 중인 ‘클린로드’(Clean Road) 사업을 통해 거리의 청결도 향상뿐 아니라 열 환경 개선과 쾌적성 증진, 냉방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름철에는 도로 물청소 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도쿄都의 드라이 미스트 외에도 인공폭포, 분수, 살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면 기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6. 비영리단체 법인 대상 용자제도 도입 (도쿄)

- 비영리단체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都가 ‘비영리단체 법인 대상 용자제도’를 2007년 7월 2일부터 실시함.
 - 비영리단체 법인이 제휴 금융기관에 용자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신은행도쿄)에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기관이 용자액의 80% 정도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 주면 제휴 금융기관이 용자해 줌.
 - 비영리단체 법인은 都가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제외한 보증금만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담보 없이 용자를 받으며, 추후 都는 보증기관의 실적보고 등을 근거로 보증금 보조금액을 보증기관에 지급함.
 - 비영리단체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용자액의 약 4%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都가 보조함.
 - 都에 본거지를 둔 비영리단체 법인이 대상이고, 용자금액은 1건당 100만~1000만 엔(약 800만~8000만 원)이며, 용자기간은 6개월~5년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r4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일본에서 비영리단체 법인 지원은 1998년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됨.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인증 받은 법인격의 비영리단체만을 대상으로 함.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성을 띤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위탁,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

- 우리나라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는 법인격에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공공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공익사업 소요경비만을 지원하도록 돼 있음. 다시 말해, 프로젝트에 기반을 뒀 사업비만 보조함.
 -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는 공익성을 가진 시민(운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임.

- 공공기관의 지원이 많을수록, 특히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지원이 많이 이뤄질수록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사이에 ‘창조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 의하거나 공공 지원에 의한 금융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박은철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parkagfe@sdi.re.kr)

7. ‘레스토랑 실외 금연’ 조례 확정 (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市)

-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금연을 실시하는 지역 정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市도 카페나 레스토랑의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2007년 6월 19일 최종 확정함.
 - 이 지역 요식업소의 반대를 고려해 흡연자나 여행자가 많이 몰리는 여름 시즌이 지난 후인 2007년 10월 1일부터 조례를 발효할 예정임.
 - 호텔 안 수영장에 딸린 식당의 경우 야외 테이블의 1/4 범위에서는 흡연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둬.

-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음 위반 시 벌금으로 약 9만 5000원을 내야 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약 19만 원, 다시 1년 이내에 적발되면 약 47만 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함.
- 현재 레스토랑이나 카페 실내에서의 흡연은 캘리포니아주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버뱅크市와 산타모니카市의 경우 이미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www.latimes.com/news/local/la-me-bevhills21jun21,1,2731915.story)

한줄 뉴스

-영국 민자유치사업 시행기관 ‘잉글리시 파트너십’, 이산화탄소 무배출 에코빌리지 사업지로 브리스톨市와 피터버러市를 선정하고 이산화탄소 무배출 건축물 설계·시공업자 공개 입찰 실시

8. 의료기관 서머타임 실시 (북경)

- 여름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북경市 지쉐이탄, 퉁런, 차오양, 어린이 병원 등 4대 의료기관이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함.
 - 의료기관 서머타임 제도는 더운 여름철에 병원을 찾는 환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월~금요일에 한 시간 일찍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부 병원은 한 시간 늦게 진료를 마치는 연장근무도 실시함.
 - 2007년 7월 2일~8월 31일 오전 7시부터 진료를 시작함.
 - 일반적으로 환자가 많이 몰리는 오전 8~10시의 혼잡시간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차오양 병원은 2005년에 북경市 최초로 서머타임 제도를 도입한 시범 의료기관으로, 시민의 의료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北京日報, 2007. 6. 26)

(www.bjgov.gov.cn/ggfw/jm/yljk/jkxx/t789416.htm)

도 시 환 경

9. 지구를 살리기 위한 6가지 생활방식 홍보 (런던)

○ 런던시장과 지구환경그룹(The Climate Group)은 지구환경을 살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삶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지구의 생태환경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벌임.

- 런던시장은 6가지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안내서를 통해 런던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

·30℃의 낮은 온도로 빨래하면 연간 9만 8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면 연간 406만 5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

·소등을 통해 연간 9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

·사용하지 않을 때 휴대폰의 충전기를 빼면 연간 3만 1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

·난방기의 온도를 1℃ 낮추면 연간 803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

·차를 마실 때 필요한 만큼만 물을 끓이면 연간 6만 2000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230)

>>> 전문가 검토의견

- 최근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 참여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관심이 한층 늘고 있음.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런던市와 지구환경그룹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친환경적 삶의 습관 정착 운동은,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실제 효과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삶의 습관 개선을 유인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2007년 4월 2일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향후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목표 설정과 연차별 이행계획 마련)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에서 비롯되는 에너지 소비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쉽게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지침서를 작성해 홍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10. 공무원 생수 구입 금지 시행 예정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시청 공무원이 생수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2007년 12월 1일까지 모든 市와 카운티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생수 구입 금지방침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음.

- 플라스틱 생수병을 만드는 데 매년 400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이 필요함.

- 캘리포니아주 쓰레기 매립지로 생수병을 운송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이 방침이 실시된 후 공무원은 헤츠헤치 저수지(Hetch Hetchy Reservoir)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식수 확보가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함.

- 市 대변인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생수 금지방침은 현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며, 민간 영역뿐 아니라 다른 市에도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www.latimes.com/news/science/environment/la-me-water23jun23,1,6296365.story?coll=la-news-environment)

11. 자동차 대기오염 측정 검사 실시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2008년 5월 2일부터 자동차 대기오염 측정 검사를 실시함.
 - 검사를 받은 차량에는 인증표가 부착되며, 인증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580헤알(약 2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함.
 - 검사를 받기 위해 운전자는 52.89헤알(약 2만 11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추후 토지가옥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도록 돌려줌.
 - 초기에는 하루 평균 2000대씩 검사하고, 2009년까지 상파울루 지역에서 운행하는 560만 대의 차량을 모두 검사할 계획임.
 - 검사를 받을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기준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재검사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 검사에 통과된 차량은 인증서를 받고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게 되며, 스티커는 떼어서 다른 차량에 부착할 수 없도록 한 번 떼면 손상되도록 제작됨.
 - 시정부의 최종 목표는 대기오염 40% 감소로, 차량 검사 첫해에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10~15%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6611)

12. 매연차량 주차요금 차등 부과 추진 (런던市 이슬링톤區)

- 런던市 이슬링톤區는 차량에서 배출하는 매연 정도에 따라 거주자 주차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제도가 시행되면 배기량 1400cc 이하 차량이나 친환경연료 차량 소유주는 종전 거주자 주차요금인 연간 95파운드(약 17만 6000원)의 21%인 20파운드(약 3만 7000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 구민의 약 2/3 가량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청은, 이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므로 구청의 주차요금 세수 증가는 전혀 없다고 강조함.

- 2006년 런던市 리치몬드 구청이 대기오염 유발 차량의 주차요금을 기존의 200 파운드(약 37만 원)에서 최대 750파운드(약 140만 원)까지 부과하고 친환경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news.bbc.co.uk/1/hi/england/london/6721571.stm)

한줄 뉴스

<베를린>

- 2007년 6월 17일~7월 29일 제5회 세계 모래조각 축제 'SANDSATION' 개최
- 이민자녀 중 7~10학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독일어 여름학교 개최
- 통합·노동·사회부와 건강·사회청,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에 기여한 고용주에게 수여하는 '2007년 베를린 통합상' 공모
- 2007년 6월 8일 '제1회 독일-러시아 축제' 개최
- 양 국가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와 양 도시 간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열려

13. '불을 꺼요, 런던' 운동 전개 (런던)

- 런던市와 런던市 라디오 방송국(Capital 95.8)은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6월 21일) 밤 9~10시 한 시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불을 꺼요, 런던'(Lights Out London) 운동을 벌임.

- 호주 시드니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성공적으로 진행한 'Earth Hour'의 기록을 깨자는 라디오 방송국의 열띤 홍보 속에 식당과 공공기관, 기업체, 가정 등이 적극 참여했음.
- 관광객을 위해 항상 조명을 켜놓는 버킹엄 궁전과 빅벤은 물론 피카디리 광장의 유명한 삼성 네온간판도 전원을 끄고 동참함.
- 유명 식당에서는 '달빛 아래서 식사를'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문화와 환경을 결합한 아이디어를 선보임.

(www.capitalradio.com/lightsoutlondon)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393)

14. 풍력 발전을 이용한 루미나리에 개최 (런던)

- 강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로 소형 전구를 밝혀 개뿔벌레가 날아다니는 풍경을 연출한 작품 '빛이 된 바람'(Wind to Light)을 런던市 템스 강변에 설치해 관광객과 시민이 친환경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007년 건축주간에 출품된 작품으로, 작가인 제이슨 브룩스는 관람객이 풍력 발전 루미나리에 작품을 통해 상식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밝힘.
-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고 비난을 받아온 런던市 일부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 받음.



(www.onedotzero.com)

(www.architectureweek.org.uk)

(www.thisislondon.co.uk/events/article-23400432-details/Wind%20power%20lights%20up%20Southbank/article.do)

15.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 연료 제조 (일본 후쿠오카縣)

○ 음식물 쓰레기로 에탄올을 제조해 연료로 이용하는 실험이 일본 후쿠오카縣 와카마츠區의 에코타운에서 진행됨.

- 학교나 병원 등에서 하루 평균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해 400ℓ의 바이오 에탄올을 제조하고 공업용 연료나 市 공용차의 연료로 시험 이용함.

·신일본제철엔지니어링과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가 위탁을 받아 실험함.

-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 폐기물 에탄올화 실증 플랜트’에서 바이오 에탄올로 제조되며, 공업용 연료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에탄올을 3% 혼합한 ‘E3 가솔린’도 제조할 예정임.

- 시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 환경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지역 통화’도 도입할 예정임.

·시민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경우 지역 통화로 1회당 300포인트를 받게 됨.

·포인트를 모아 쓰레기봉투나 친환경 세제, 장바구니 등과 교환할 수 있음.

- 이는 그동안 소각 처리해 온 연간 15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요미우리신문, 2007. 6. 26)

16. 수질 개선으로 페트병 수돗물 판매 (도쿄)

○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쿄都 수도국이 정수장에서 처리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도쿄수(500ml)라는 상표로 판매하고 있음.

- 1병에 100엔(약 750원)으로 소비자들은 맛이 좋다고 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년도의 두 배 가까운 4만 3000개가 판매됨.

- 都 수도국은 1992년 이후 오존이나 생물 활성탄을 이용해 곰팡이나 암모니아 냄새 등을 제거하는 고도 정수처리 방식을 정수장 3곳에 도입했지만, 개선된 수질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바뀌지 않아 2004년부터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 판매를 시작함.

- 아파트나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수도관을 통해 직접 가정이나 학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직결급수시스템 도입도 진행하는 등 신선하고 맛있는 물 공급에 힘쓰고 있음.

- 일본 수도협회에 따르면,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수도국은 일본에서 46곳이고 판매는 하지 않지만 홍보용으로 공급하는 곳은 30곳에 이름.

(headlines.yahoo.co.jp/hl?a=20070626-00000065-mai-soci)

한줄 뉴스

<브라질>

-상파울루市, 흡연 공간을 없앤 상점이나 레스토랑에 '금연환경 인증표' 부착 예정

-오르틀란디아市, 투자 유치를 위해 입주업체에 20년간 토지가옥세 면제
·2005년부터 10여 개 대기업이 공장을 세웠는데 투자 규모가 5억 헤알(약 2500억 원)에 달하고 7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음.

- 플로리아노폴리스市, 2007년 6월 21일 신체 장애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자문위원단 발족

·정부기관 소속 7명과 비정부기관 소속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을 위한 교통 대안 등을 논의

17. 대규모 사업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의무화 (도쿄)

- 도쿄都는 대규모 사업소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 사업소 간의 배출량 거래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함.
 -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저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은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都는 2008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都 기후변화 대책 방침’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저감 의무화 대상 사업소는 연간 열·연료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kl 이상인 대규모 사업소임.
 - 배출 초과량을 중소기업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배출량 거래제도를 동시에 실시함.
 -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都 소유 시설 신축 시 유리창과 단열재를 두껍게 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대 30%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규격’을 도입하기로 함.
 - 향후 민간 빌딩이나 區 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임.

(headlines.yahoo.co.jp/hl?a=20070601-00000147-mai-soci)

18.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 제도 확대 실시 (도쿄)

- 도쿄都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연면적이 1만㎡가 넘는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물 환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부터 분양 아파트 광고에 환경성능 표시를 의무화했음. 이번에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환경성능 표시를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함.
 - 도쿄都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 의무화로 아파트의 환경성능이 꾸준히 향상돼 왔기 때문임.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건물의 건축주가 환경 배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 환경성능 표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환경성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 확인 신청 30일 전까지 건축물 환경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근거해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를 광고에 게재하며 게시한 후 15일 이내에 환경성능 표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표시 항목은 건물의 단열성, 설비의 에너지 효율성, 건물의 내구성, 녹지 비율 및 질 등 4가지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q300.htm)

19. ‘꽃 매트’를 이용한 도시녹화 (도쿄)

○ 도쿄都 농림종합연구센터는 도내 꽃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도쿄 꽃 매트’를 개발하고, 소니社가 개최한 환경 월간 이벤트에서 도쿄 꽃 매트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녹화 모델을 소개함.

- 도쿄 꽃 매트는 꽃을 25cm×25cm×4cm의 평평한 용기에 길러 뿌리를 매트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얇고 가벼우며 어디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옥상녹화나 화단에 이용하는 것은 물론 경사지나 수직 화단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뿐 아니라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



도쿄 꽃 매트



도쿄 꽃 매트를 이용한 공간 녹화의 예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f200.htm)

도 시 교 통

20. 급행버스 노선 확대 추진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도시교통국은 효율성이 높은 급행버스 노선을 2008년 6월까지 추가하기로 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을 운행할 급행버스 신규노선 8개 신설 계획과 약 2조 8755억 원의 예산안을 2007년 6월 4일 발표함.
 - 현재 15개 급행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데 2008년 6월까지 28개로 확대할 계획임.
 - 2000년 6월부터 시행된 급행버스 서비스는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 수를 줄이고 러시아워에는 매 3~10분 단위로 운행횟수를 늘려 일반버스보다 25% 더 빨리 운행하는 것임.
 - 급행버스는 신호등의 초록불 시간을 연장하거나 정지신호를 10초 빨리 단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음.
 - 2008년 6월까지 현재 359대의 급행버스를 500대까지 확충할 계획임.
- (www.latimes.com/news/local/la-me-rapid5jun05,1,1930411.story)

21. 자전거 패션쇼 개최 (런던)

- 2007년 6월 21일 런던교통공사가 후원하고 자전거 용품점이 주최하는 런던 최초의 자전거 패션쇼 '프레타 룰레'(Prêt à Rouler)를 개최함.
 - 자전거 이용자라면 누구나 형광 재킷과 자전거용 전구, 버섯 모양의 자전거 전용 헬멧을 갖추어야 함. 여기에 패션 감각을 곁들인다는 신선한 접근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도심 자전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런던교통공사의 자전거·걸기·접근성 부서에서 지속가능한 이동성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단순히 이용자 증가뿐 아니라 자전거 타기에 대한 인식이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전거 용품의 변화가 더딘 편이었다고 지적함.

-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루 갖춘 의류와 용품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패션쇼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보기 좋고 기능성도 높은 자전거 용품 및 의류 개발은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5325.aspx)

한줄 뉴스

- 북경市 재정국, 2007년 6월 3일 출장여행경비 관리규정을 개정해 공무원 출장 시 교통수단과 숙소에 대한 세무지침 마련
- 공무상 지출된 제반 비용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3성급 이하 호텔로 숙박시설 지정

22. ‘자전거 르네상스’ 이벤트 개최 예정 (런던)

- 런던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9월 23일 하루 동안 런던 시내 14km의 도심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화하는 ‘자전거 르네상스’(Cycle Renaissance)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임.
 - 자전거 전용도로가 런던아이, 빅토리아 강변, 웨스트민스터, 성 베드로 성당 등 런던의 명소를 지나갈 수 있게 계획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함.
 - 런던시장과 런던교통국은 지난 7년 동안 자전거 이용자가 83% 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 내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는 정책을 펼 것이고, 이벤트를 통해 런던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2530)

23. 불법주차 감시원 제도 확대 시행 (도쿄)

○ 도쿄都 경찰당국은 都内 12개 區에서 실시하는 불법주차 적발 주차감시원 제도를 2008년 4월부터 23개 區로 확대하기로 함.

- 2006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감시원이 불법주차를 적발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도내 주요노선 불법주차 건수가 1/3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음.

·경시청에 따르면 주차감시원 제도 도입에 따라 도내 주요 10개 노선의 불법주차 건수는 도입 전인 2006년 5월 24일에 1051대였는데 2007년 5월 23일에는 363대로 감소함.

·평균 정체거리도 전년도보다 약 3km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었음.

- 치요다區, 미나토區, 신주쿠區 등 12개 區의 43개 경찰서에서 주차감시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65개 조(2인 1조)가 활동 중임.

·2007년 8월부터는 오오타區, 수기나미區, 이타바시區 등 5개 區의 9개 경찰서에서도 실시할 예정임.

·경시청 교통부는 주차감시원 제도를 23개 區의 77개 경찰서로 확대해 385개 조로 늘릴 예정임.

(www.tokyo-np.co.jp/article/tokyo/20070623/CK2007062302026417.html)

한줄 뉴스

- 샌프란시스코市, 향후 5년간 불법투기 쓰레기 50% 감축 계획 발표

·음식점 등에서 작은 포장지를 사용하도록 유도

- 캘리포니아州 도시교통위원회, 4번의 '대기의 날'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베이지역에서 대중교통 무료승차 실시

·이 지역 거주자의 10%는 적어도 한 번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방재 · 안전

24. ‘존경 지역’ 지정으로 반사회적 행동 감소 (영국)

- 영국정부는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해 빈곤지역과 인구밀집 지역 40곳에 ‘존경 지역’(Respect Areas)을 지정해 반사회적 행동 문제를 줄였다고 발표함.
- 2007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존경 지역의 75%에서 반사회적 행동이 줄어들음.
 - 2003~2006년의 전체 통계를 보면 반사회적 행동이 38%에서 23%로 감소함.
 - 존경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잉글랜드의 347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반사회적 행동이 47% 낮은 것으로 밝혀져 존경 지역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영국정부는 존경 지역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얻은 빈곤 정도, 인구밀도, 유입 인구, 폭력 범죄, 25세 이하의 주민 비율 등의 정보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힘.
(regennet.hbpl.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54142669-7cf8-470f-86ba-154254479edf&e=1)